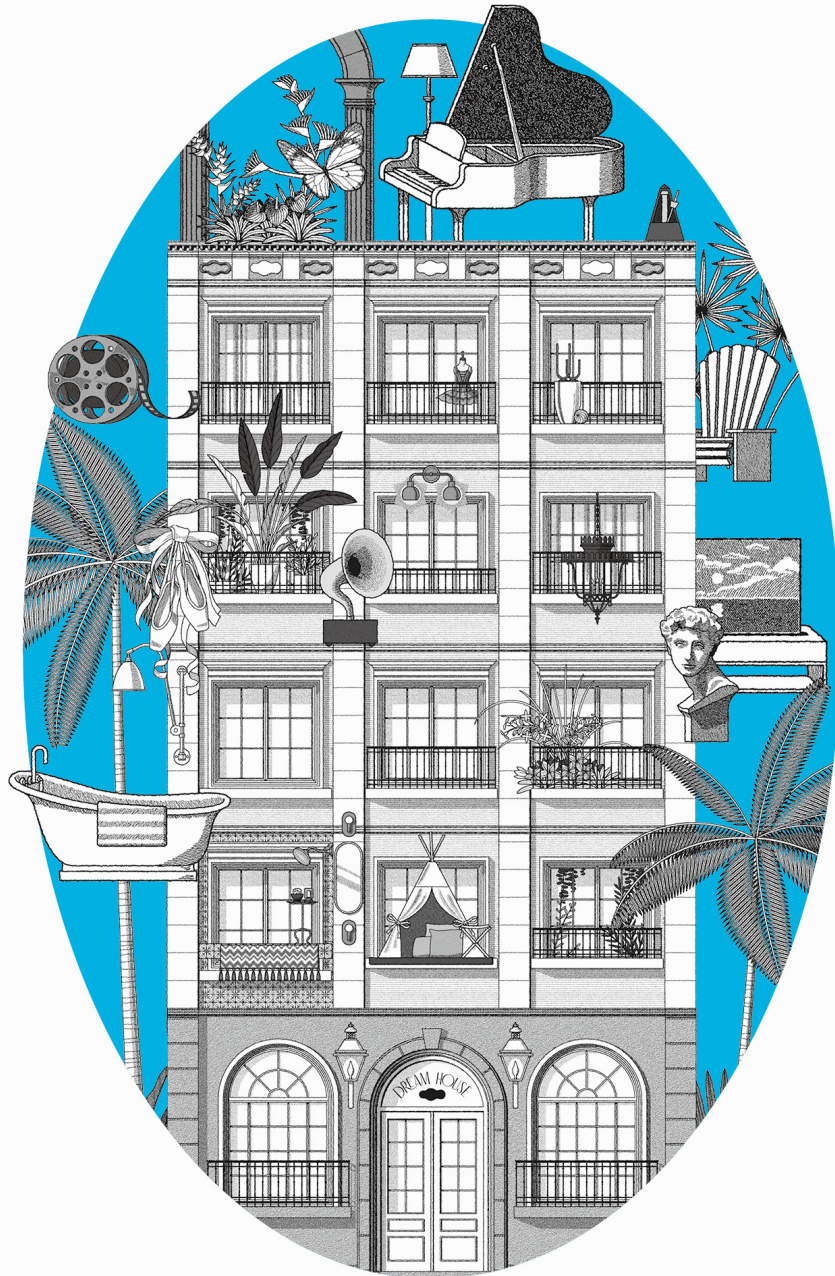


EXCELLENT GUIDE

VOL.2



최상위 주거문화 트렌드

Natural & Greenery

단절의 시대, '자연'이말로 최고의 럭셔리라는 것을 건축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정원과 연결성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한 타운하우스, 열대지방 특유의 화려한 열대식물을

익스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용한 고급 아파트, 가공하지 않은 나무와 자연적 소재로 편안함을 더한 주말 주택까지.

자연과의 교감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설계한 주거 공간들.



Huntingtower Road

부동산 개발사 오차드 파이퍼 Orchard Piper와 건축사무소 졸슨 Jolson, 조경 회사 볼드윈 디자인 Baldwin Design 등 호주 최고의 드림 팀이 협업해 부티크 스타일의 프라이빗 레지던스를 오픈했다. 바로 호주 멜버른의 '헌팅타워 로드'로, 특유의 시적이고 단정한 아름다움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주소에서 이름을 따온 이곳은 2층 규모의 건물에 반타원형 창문이 죽 늘어서 있는 클래식한 건축 스타일과 마치 작은 식물원을 방불케 하는 세심한 정원이 특징이다. 이 '정원 중심'의 레지던스를 구현하기 위해 볼드윈 디자인은 식물마다 다른 질감과 식물의 키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늘의 크기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 조경을 설계했고, 덕분에 입주자들은 도심 속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레지던스 1은 525m² 규모의 2층짜리 공간과 독립된 로비, 시네마 룸, 게임 룸, 개인 체육관, 4대까지 가능한 개별 주차 공간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공간의 규모에 따라 165m² 크기의 레지던스와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레지던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오크 나무로 만든 바닥, 마블과 포슬린으로 마감한 주방, 특별 제작한 화로 등 자연에 가까운 요소들로 세심하게 디자인해 공간 어느 곳을 보아도 특유의 미감이 돋보인다. huntingtowerroad.com.au





←
Circle 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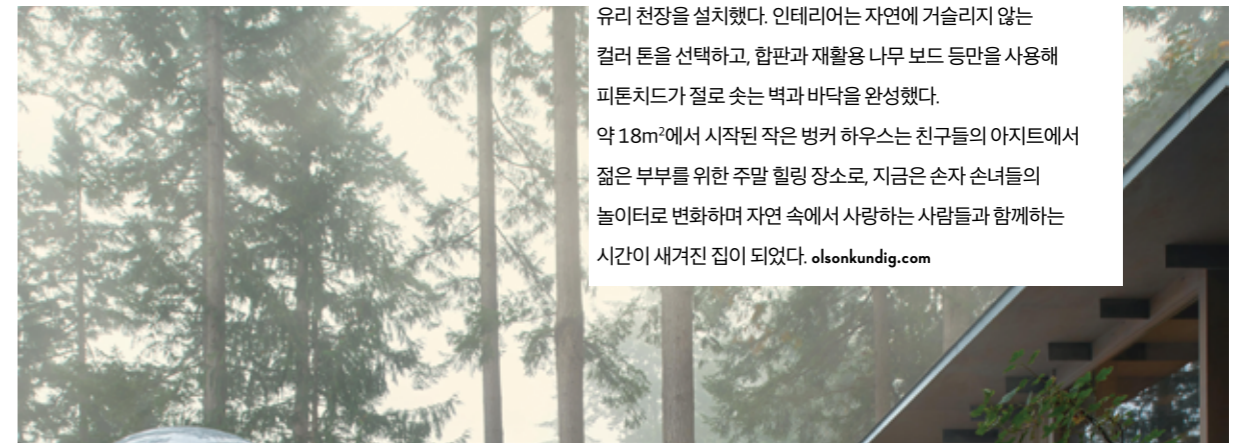
숲속의 갤러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 테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작은 마을 이자벨린 Izabelin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서클 우드'는 건축사무소 프세미스와프 올치크 모비우스 아키텍처 Przemysław Olczyk Mobius Architekci에서 설계한 개인 주택으로, 미술품 수집가인 집주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가정집의 편안함과 갤러리의 웅장함을 동시에 담은 곳이다. 건축가 올치크는 400m² 규모의 이 집을 숲의 또 다른 일부라고 생각하고, 서아프리카산 오크메 okume 우드 패널을 원형 건물의 외부 전면에서 사용해 숲과 건물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게 했다. 또 통창과 유리를 이용해 집의 안과 밖이 연결되도록 했고, 나선형 계단으로 생활 공간인 1층과 베드룸이 있는 2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이 같은 구조 덕에 낮에는 채광이, 밤에는 별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계절의 변화를 시시각각 누릴 수 있는 이 집은, 자연과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라 할 만하다.

mobius.pl



↑↓
Cabin at Longbranch

어렸을 때 서투게 지은 오두막집을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증축하고 개조해 번듯한 집으로 만든다면? 꿈같지만 한 이 이야기는 미국인 건축가 짐 올슨 Jim Olson의 실제 이야기다. 워싱턴 롱브랜치의 명물인 숲속의 오두막 '캐빈 앳 롱브랜치'는 짐 올슨이 1910년대 조부모의 여름 별장에서 지내던 기억을 바탕으로 삼아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한 18세에 첫 삼을 뜬 후 60년에 걸쳐 천천히 개조한 곳이다. 산속의 푸르른 나무와 하늘, 근처 퓨젯 Puget 해협의 아름다운 뷰를 오롯이 집 안에 들이기 위해 거실에는 통창을, 베드룸에는 유리 천장을 설치했다. 인테리어는 자연에 거슬리지 않는 컬러 톤을 선택하고, 합판과 재활용 나무 보드 등만을 사용해 피톤치드가 절로 솟는 벽과 바닥을 완성했다. 약 18m²에서 시작된 작은 방카 하우스는 친구들의 아지트에서 젊은 부부를 위한 주말 힐링 장소로, 지금은 손자 손녀들의 놀이터로 변화하며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새겨진 집이 되었다. olsonkundig.com





Rustic Canyon Residence

이 집은 미술품 수집가이자 LA 현대미술관의 이사인 델러스 프라이스의 딸, 제이미 프라이스 부부의 집이다. 이 지역에서 태동한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이들이 설계를 맡긴 곳은 코너 & 페리 아키텍츠 Conner & Perry Architects.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건축의 장인 존 로트너 John Lautner를 사사한 듀오 건축가의 사무소로, 자연주의 건축 분야에서 손꼽히는 곳이다. 부부가 소장한 인상적인 아트 컬렉션, 유칼립투스 나무와 오크 나무가 우거진 부지의 특성을

건축에 잘 녹여내는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들은 집 안 곳곳에 커다란 나무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을 뒀으며, 야외로 확장된 캐노피로 야외 공간과 실내가 이어지는 개방감 있는 중정을 만들어냈다.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도 '예술 작품' 혹은 '자연'이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 역시 이 집의 가장 큰 미덕이다. 집을 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잘려나간 몇 그루의 나무는 불박이 침대와 벽난로, 야외 테이블로 재활용했다.

conner-perry.com



Eden Singapore

2 드레이콧 파크 Draycott Park는 싱가포르에서 고급 주거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프라이빗 클럽과 학교, 쇼핑센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식물원 등이 이 지역만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 여기에 지난 2020년, 20층짜리 초고층 주상 복합 가든 아파트 '에덴 싱가포르'가 들어서면서 방점을 찍었다. '영국의 다빈치'라 불리는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의 헤더윅 스튜디오 Heatherwick Studio와 홍콩 기반의 부동산 개발 회사 스와이어 프로퍼티스 Swire Properties가 협업해 지은 것으로, 창이 싱가포르 공항 5터미널 설계에 이은 헤더윅의 또 다른 싱가포르 프로젝트다. 싱가포르를 '정원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해 헤더윅은 각 세대의 거실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베란다 부분에 마치 조개껍질을 이어 붙인 듯한 행잉 발코니를 배치해 자연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었다. 에덴 싱가포르의 심벌이 된 이 행잉 가든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 식재와 배수가 가능한 거대 하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상 23m에서부터 시작되는 로비에는 한적한 야외 수영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한 유명한 의자 '스핀 체어'가 놓여 있다. eden.sg



La Torre Bianca

이탈리아어로 '하얀 탑'이라 이름 붙은 이 집이 위치한 곳은 이탈리아 남부 아드리아 해안가에 있는 갈리아노 델 카포 Gagliano del Capo의 작은 시골 마을이다.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로렌초 그리판티니 Lorenzo Grifantini가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휴식하기 위해 만든 주말 주택으로, 그와 그의 아내가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아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완성했다. 로마식 전통 건축의 문법에 따라 수영장 옆의 중정이 집의 중심 역할을 하고, 산 로코 교회 종탑과 같은 높이인

12m의 타워형 건물을 지어 해안 풍경을 침실에서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건물의 하얀 표면과 중정 한가운데에 심은 나무, 대나무로 마감한 캐노피의 천장은 빛과 그림자의 작용으로 시시각각 이 집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모든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해 자연 환기를 돕고, 벽 두께를 두텁게 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냉난방 효과를 노렸다. 불필요한 건축자재를 배제하고, 나무와 석재 등 친환경적 소재만으로 마감한 내부 역시 이 집에 간결하고 친환경적인 느낌을 더한다. dosarchitects.com